

식품권혜택자 부족늘어

최저소득선 120%미만이면받을수있어

하와이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8월 1일부터 6월 한달동안 총 2만 2천 8백 11가구의 6만 5천 23명이 후드 스탬프제의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사람들은 총액 1백 20만 달러를 들여서 2백 70만 달러어치의 후드 스탬프를 싸게 산 셈이다.

이같은 통계숫자는 작년 6월에 비해 23퍼센트나 증가한것이고 금액면에서도 38%나 늘어났다.

지난해에 비해 이처럼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았는데도 하와이주 사회복지 주 책과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보고있다.

후드 스탬프제도는 주정부에서 설정한 최저소득선에서 120%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일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인데 이것을 다 시달하면 1인가구의 경우에 최저소득이 218달러이

하일 경우에는 후드 스탬프의 혜택을 받을수있고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월 620달러 미만, 8인 가족의 경우 1천 600달러 미만 이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조정소득이라는 것은 월 총소득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말하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같다

▲의료보험 및 치료비, 약값, 병원비용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
▲가족중에 환자가 있을 경우, 식모 또는 가정부의 월급.
▲학교의 등록금 및 수업료.

▲법인 관제에 의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
▲장제비용 또는 화재, 도난, 홍수, 태풍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 각종비용
▲전화요금, 저당 이자를 포함한 각종 렌트비용을 공제한후에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재산세.

이상과같은 조건에 해당 하는 사람은 일정한금액을

내고 후드 스탬프를 사게되는데 소득이 작으면작을수록 더많은 보너스를 받게 된다.

예를들면 한달에 3백달러의 조정소득을 갖고있는 5인 가족의 경우에는 84달러를내고 2백 20달러 어치의 후드 스탬프를 받게된다.

그러나 이 5인 가족중 18세부터 65세까지의 노동능력이있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는 취업요청서를 내야만 혜택을받을수 있게 되어있다.

단 노동능력이 있는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의 어린이가있는 어머니나 한주일에 30시간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은 취업요청서를 내지않아도 된다.

1천 5백달러 이상의 예금이나 주식에있는 사람은 후드 스탬프를 받을수없다 그러나 2인가구의 경우 그중 한사람이 60세이상일경우에는 3천달러까지의 예금이있어도 후드 스탬프를 받을수있다.

地方 종합소식

리글과 한국적그림이 새겨진 컵가락을 사용할수있게 되었다.

USTRI 코로레이션 (대표 유승재, 김상용)에서 컵가락포장기 (1만여달러)를 도입, 포장과동시에 각 식당명과 상징적인 그림을 2색도인쇄하기시작했다

이것 각 식당에서는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본만이 새겨진 일본제 컵가락을 사용, 등모들에게 불쾌한감을 주어 왔었다.

1001년형 불리바드 11호에 자리잡고있는 동희사에서 1천여 스페어피트의 넓이가 꼭차도록 한국산 컵가락을 산적해놓고 작업을 벌이고있는데 하루에 5

만개를포장, 가공할수있다. 「남방산목재로만든 일본제 컵가락보다 한국산이 테리 포를러도 만든 한국 컵가락은 원부부터 질적으로 우수하고 가격면에서도 저렴한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한 유승재씨는 「무엇보다도 컵가락까지 일본 제품을 써야하나? 하는 불쾌감을 제거할수있다는 궁지속에 유쾌하게 작업을 하고있다」고 말한다.

컵가락수입 가공의에전 자체산기, 워키키, 골프공, 인형, 목각공예품, 갑포벽지등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뉴요크, 시카고 등지에 도매하고있는 USTR 코로레이션의전화는 847-0154.



유승재씨 (오른쪽)와 김상용씨가 새로 도입한 컵가락포장기 옆에서 있다.

파탄 몰고온 사기결혼

남편과 시어머니 결별강요, 행방감춰

시카고



사기결혼한 아들을 도우시 김봉희여인

본제의 장본인은 지난 72년에 유학생으로 도미, 일시 루즈벨트대학에 적을두고 있던 박성익씨 (27세) 박씨는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에 미국에 사는 언니집에 다녀왔던 이모양 (26세)을 시카고의 미드웨스트 한인교회에서 처음 만나 자신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있었다면서 결혼해줄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처음 이양은 박씨의 끈질긴 구애를 물리치곤했으나 박씨는 막무가내 집에 찾아오는등 열렬히구애해 결국 지난해 2월부터 동거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금년 6월 7일 쿡 카운티에서 결혼 수속을하고 6월 13일 쿡 카운티의 결혼 법정판사 앞에서 결혼식을 거행했으며 그간 신혼살림을 해왔다.

그러나 신혼후 박씨는성 불구자임을 밝혀졌으며 (이양의 말) 2개월후 그가 다녔던 노스웨스턴 대학에 적응불능이 없음을 밝혀지기도 했다. 이양은 이미 결혼신고를 마쳤으므로 자신의 운명이라 체념하고성 불구자인 박씨를 남편으로 하여 일생을 같이하기로 마음 다짐하고 워싱턴에서는 언니를박씨와 더불어찾아가 영주권을 신청해주었다.

그러자 지난 9월 17일 박씨의 어머니인 김봉희씨가 유스호스텔 세계대회에 참가하고 귀국길에 아들만을 내려 시카고에 올무로써 문제를 터졌다. 한국의 유스호스텔부 회장이며 김봉희씨를 후원하고있는 김봉희씨는 자기아들과 정실결혼을 한 이양에게 헤어질것을 강요했다. 다 구실로 이양이과거한국에서 4 0대의 남성과 1년간 동거한 사실이있으며 무산한 일도 있다고 했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이양의 가문이 신통치않다느니 하면서 이양에게 심한

자처하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등의 사회활동을 할수 있는가라고 분개하고있다. 김여인과 아들은 지난 27일 이후 아무 연락없이 자취를 감추고있다.

브라질

국군의날맞아 영화회

8백여명의 교포참관

(브라질) 지난 1일 한국의 국군의날맞아 이곳 제대한 국군 문화회에서는 하오 8시부터 「아! 육영수여사님」 「조국의분노」 등 5부작의 뉴스화 2·5를 상시하는 영화 「중언」을 상영했다.

이날 상과총영사 박인수 씨를 비롯 차신모 교민회장 등, 8백여명의 교포들이 관람, 조국에대한인상을 더욱 새롭게 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회회 집행회장은 고 육영수 여사님에 대한목념을 관조과함께 드린 후 「남로발정하는 교국의발전이 저 괴뢰집단의 방해를 받아서 되겠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보고 산중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 육영수여사님」의 영화가 상영되자 관중은 모두 숙연한 자세로 극모름힘은 슬픔에 눈시울을 적시었으며 「조국의분노」에도 큰관심을 보였다.

社告

상항지국 직원모집

본사 상항지국에서는 다음과같이 직원을 모집합니다.

- (1) 새크리터리 (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 (2) 일반업무 (남)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 가주 운전면허 소지자.

희망하시는 분은 자필이력서 (전화번호 꼭 기입할 것) 1봉을 20일까지 보내주시면 개별통보해 드립니다.

1974년 10월 일 한국외국인 상항지국 2123 Clement St. S F 94121 (415) 221 1521

羅城春秋

바쁜 생활

미국생활은 바쁜생활이라고들한다. 한국에서 6일만 그것도 하루 8시간이상의 근무에 쫓겨있는 우리들은 주 40시간노동에 워렌이라는 연휴가 있는데도 마냥 시간에조들리는 생활을 하고있다.

바쁜생활이라는 시간관념은 한결을 더 나아가우 리들의의견적 여건에도 뒤따를수없는 변화를 수반하여 잠깐이라도 한눈을팔면 시대에뒤떨어지는 느낌을 주게된다.

이같이 의견상의 변화도 대단하지만 사람의마음을

잡아하려는 선전공세도 대단하다.

TV 나리ادی, 신문광고 주간지, 그리고 조식간지나 개별적인 광고우편물등이 매일같이 우편함에 가득담겨져 있다.

필자는 이런 인쇄물이 어떻게 유통될수있을가하는경세적타산이 의상스러울때 가 많이 있다.

TV 나리ادی광고는 한번보고 들으면 쉽게치러할 수가 있는데 책을 많이취급 하는지언이 아니라 그런지 인쇄물로서 나타날 적에는아 무리필요없는 선전물이라고 반드시 한번눈여겨보게 되고 보관할려는 습관이나 도모르게 굳어진다.

내 자신이 글도세보고글 판도해본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몰라도 아동은 인쇄물이라 그곳에 쓰여진 여러사람의 꿈을 생각하게되어 자연히 책상위에 올려 놓게되곤한다.



(신용학 박사)

그러나 이것들을 전부 읽고 있으면 큰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바쁜 일상생활에 이것까지 처리하려면 24시간 다 소비해도 어렵겠다.

더욱이 요즘은 책상마 갈생활이 늘어난 환경에서 이같은 서적내내 소개물들을 선람이 쌓아놓고 "언젠가는" 하고 다짐을 하는 선에서 의리를 지키곤 한다.

이런 때마다 옛날 노자가 말한 "모든 책을읽어야만 된다"는 말은책은 없느니라 못하다"라는 말을 생각해내 변명걸 자기위안을 삼는다.

필자의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어주는 것으로는 로젠기스트가 쓴 "물리의 산책"이라는 책의 인용귀.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두뇌는 수록할수 있는 정보량이 제한되어 있으니새 일을 하려면는 지금까지한 일들을 정리해서 대개 잊어 버리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했다. 또 "잊어 버리는 것보다 더 나은 대책은 쓸데없는 것은 아예처음부터 머리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죽 쓸데없는 것은 받으면 곧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는 자를 읽었을때 "그래도 나는..." 하고 조금은 위안이 되는데, 가끔 스스로 다짐해보고

는 하지만 앞으로는 비쁜 일상생활에 여러가지 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목적인일에만 전념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자연히 본업인 대학교육이라는 과제에 부딪힌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대한 적극적인 의의는 요사하 10 여년간가 르치는데만 전념하다가 작은 대학이나 교육행정을 맡아보면서부터 더욱 실감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세상에서 부합하는 대학을 육성할수 있을까 하는과제에 몰두하게 된다.

어학은 이 바쁜 미국생활에서 정신이상이 안되려면 "바쁜 길은 돌아가라"는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쓸데없는 일에는 필수록 신경을 안써보려고 애를 쓴다.

APPROVED SINGER DEALER

SINGER 공사용 · 가정용

희소식
CREDIT이 없으신 분도 월부로 사실수 있습니다

수리 · 교환 · 부속일체

영스 재봉틀 · 청소기센터

3008 W. OLYMPIC BLVD. L. A.
382-8090 382-9811

월~토 10~7
일요일 12~4

한국일보 광고문의는 487-1080

생명

교육

종합보험

건강사업

자동차

노광길 보험

387-5283
RES. 222-4572
950 S. VERMONT AVE.
Rm. 211 L. A. CA.

미주내 유일한

우리의 일반시중은행

가주한국외환은행은 FDIC 멤버이며 고객의 거래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FULL SERVICE 은행으로 친절과 성실로 봉사해 드립니다.

가주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lifornia
(213) 482-5050
113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LIF. 90017